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13일 목요일 음 7월 1일 (8월)

기상정보



구름많음

제주에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4°C, 낮 최고기온은 30-31°C로 예상된다. 가끔 구름많다가 늦은 오후까지 산지·중산간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릴 예정이니 유의해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 주	20%
20%	성 산	20%
20%	고 산	20%
20%	서귀포	2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흐림 23/31°C
모레 ☁️ 흐리고 비 24/31°C

월드뉴스

호르무즈·홍해에 미사일... 미국·이란 협상 위태

친이란 후티도 홍해통제 맞불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입구에서 상선을 겨냥한 공격이 재발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악화했다.

1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미군 헬기가 대이란 해상봉쇄를 위반하려는 파나마 선적 선박에 헬파이어 2발을 발사해 무력화했다. 선원 17명은 모두 안전했다. 비슷한 시점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는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이집트 화물선을 향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해 6명이 숨졌다.

양대 원유 길목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도 상승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8.91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은 83.20달러로 각각 1.4%, 1.3% 올랐다.



홍해에서 후티에 공격을 받은 상선. 연합뉴스

중재국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이 '모종의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접점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재개방 조건으로 미군 철수와 해상봉쇄·제재 해제, 동결자산 반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제재와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란도 미국이 전쟁을 끝내고 동결자금을 풀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목요일론



양 상철

융합서예술가·문화칼럼니스트

서귀포 정방폭포는 동양 유일의 해안폭포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정방전 상류에서 흘러온 맑은 물은 절벽을 타고 바다로 떨어지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든다. 그러나 이 풍경은 또 하나의 시간을 품고 있다. 정방폭포는 제주4·3을 대표하는 역사 현장이다. 이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고, 남겨진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안고 긴 세월을 견뎌야 했다. 오늘도 섬 없이 떨어지는 폭포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제주의 아픈 역사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다.

정방폭포, 평화예술공간을 꿈꾸다

제주4·3은 어느 한 장소만의 역사가 아니다. 한라산과 오름, 마을과 바다까지 제주 전역이 그 비극을 함께 겪었다. 희생자는 낯선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였고, 형제였으며, 삼촌이었고, 이웃이었다. 그렇기에 4·3은 4월에만 기억하는 추모의 대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과 교육,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겨져야 하며, 다음 세대에게도 살아 있는 기억으로 전해져야 한다. 현재 정방폭포 인근 서북기념관 동북쪽에는 작은 4·3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정방폭포가 제주4·3을 상징하는 역사 현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공간은 너무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다. 역사는 감추거나 지울 수 없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더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는 오래전부터 비극의 역사를 예술과 문화로 기억하는 길을 선택해 왔다. 독일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은 추모비를 넘어 시민과 여행자가 역사를 성찰하는 공간이 됐다. 이탈리아 볼로냐는 1980년 기차역 폭탄테러의 상처를 광장과 문화행사 속에 담아내고 있으며,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은 원폭의 참상을 평화와 생명의 가치로 승화시켰다. 이들 공간은 비극을 감추지 않았기에 더욱 깊은 울림을 남긴다. 예술은 상처를 덮는 장식이 아니다. 아픔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와 나누는 가장 오래된 언어다. 정방폭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정방폭포 상류의 정모시공원에서 자구리공원에 이르는 해안 공간을 하나의 평화문화권으로 연결하고, 절제된 공공미술과 문학, 음

악, 전시가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주의 평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해마다 열리는 평화예술제는 추모 행사를 넘어 4·3의 의미를 오늘의 문화로 이어 주는 장이 될 것이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는 동시에 제주의 아픈 시간을 마주하게 되고, 그 기억은 다시 자신의 삶과 평화의 가치를 돌아보게 할 것이다.

역사는 기억될 때 비로소 미래를 밝힌다. 아름다운 풍광 뒤에 숨은 정방폭포의 깊은 상처를 예술과 문화의 힘으로 다음 세대와 나누어야 한다. 비극을 예술로 기억하는 일은 과거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오늘의 삶으로 이어 가는 가장 성숙한 방법이다. 정방폭포는 그 첫걸음을 시작하기에 가장 상징적인 장소다.

열린마당

기후 뉴노멀, 재난 대응에서 정책 전환으로



유 종 인

제주도자연재난방재연구원장

최근 제주에서 발생하는 기상이변은 더 이상 '이례적 현상'으로만 보기 어렵다. 이제 우리는 '기후 뉴노멀(Climate New Normal)'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에는 태풍, 호우 등 개별 재난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장기간 폭염, 집중호우, 강풍 등 다양한 위험이 반복되거나 서로 영향을 미치는 복합 재난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첫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난 대응체계 구축이다. 오름과 중산간 지역은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출과 탐방객 안전을 중심으

로, 해안지역은 태풍·월파·해안침식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지역별 위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도민 참여 기반의 안전문화 확산이다. 재난 대응은 더 이상 행정만의 역할일 수 없다.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 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생활 속 안전 실천과 재난예방 활동을 일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기상정보와 데이터에 기반한 대응체계 구축이다. 기상·기후 데이터는 재난 대응의 핵심 자산이다. 이를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위험 예측과 정책 결정, 현장 대응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다. 행정과 연구기관, 전문가,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지역 기반 단체가 축적한 현장 경험과 네트워크는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린이의 안전에는 방학이 없다



양 미 애

제주시 교통행정과

"방학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하냐?"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방학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문의를 자주 접하게 된다. 학교가 쉬는 방학이면 단속도 잠시 쉬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일상은 멈추지 않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은 학교 운영과 상관없이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가 불법 주·정차이다. 잠시 세워둔 차량이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잠깐의 편이 어린이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지난 3일부터 방학 기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현장에서는 "주변에 주차할 곳이 부족한데 어디에 차를 세워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주차의 불편함이 어린이의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고, 불법 주·정차 대신 지정된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작은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 부모 역시 아이들에게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좌우를 살피며,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반복해서 알려 줘야 한다. 어린이의 안전에는 방학이 없다. 운전자와 부모,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아이들의 안전한 하루를 만든다.

모델비례 체험 맞춤 정장

제일사 양복점

이전기념행사

· 33년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제주시 중앙로 170 / TEL. 722-0914, FAX. 722-9098 | 영업시간: AM9시~PM9시 일요일 쉽니다 | <http://www.cheilsa.co.kr>

맞춤바지 무조건

- 3장 15만원
- 2장 12만원
- 1장 7만원

원단 다량 확보

시청 ↑

고용복지센터 (구. 상록회관)

← 삼성혈 칼호텔

→ 전농로

↓ 중앙로

제일사

NAVER 제일사 검색

빈틈없이 파~악 채웁니다

균열에 방수재 주입

공간의 물을 밀어냄

주입구 공간을 채움

완벽한 방수

철저한 검사

꼼꼼한 시공

에코방수란?

벽, 창틀, 옥상등 균열틈새에 아크릴수지와 마이크로시멘트를 속속들이 주입하여 안에 있는 물을 밀어내고 틈새와 공간을 채워 영구적인 방수와 단열효과까지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수기법

에코방수 010-9086-8965